

금호석유화학, 본사 이전 “만장일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이 9월1일 금호아시아나 본관을 떠나 중구 수표동 시그니처타워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5월11일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5월11일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본사 이전을 결의했다.

금호석유화학 임직원들은 이사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2011년 비전 선포 후 사업 확대와 함께 임직원 수가 늘어나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등 기본적인 사무공간은 물론 시무식이나 입사면접과 같은 주요 사내행사를 위한 공간조차 부족했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의 한 고위 임원은 “본사 이전이 계열분리라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제약 없이 활동하고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늦어도 2012년 말까지 자유흥약을 졸업하고 계열분리도 가시화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2/05/14>